

여성학 입문 : 포스트모던 시대의 여성

제6강 여성과 영화

강사 : 박남희

여성과 영화

◆ 여성과 영화

※ 학습목표

영화 속에서 여성은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그려졌는지 알아본다.

▲ 지난시간 - 여성의 글쓰기

지난 시간에는 여성의 글쓰기에 대해 학습했다. 먼저 인류의 반인 여성의 경험을 남성이 평가절하했기 때문에, 여성의 글쓰기가 빈약하고 감정적인 것으로 치부된 것에 대해 알아봤고, 고대신화의 여신이 이데올로기에 의해 남신으로 바뀌면서, 가부장제도하에 여성에게 어떤 굴레를 씌웠는지 살펴봤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요구된 것은 각각 달랐으므로 여성은 제한된 경험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본성적으로 여성이 감정적이기만 한 것은 결코 아니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맞이해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역할을 수행할 때, 남성 못지않게 이성적 판단이나 종합적 사고를 하는 모습을 수없이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선입견에 의해 여성을 제한된 역할에 고정시키는 것은, 사회의 억압적인 이데올로기로 하나의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을 이제 여성이 성찰하고 왜곡을 바로잡고, 여성이 경험했던 것을 소중한 여기며, 문화와 삶의 다양한 경험으로 연장시켜야 한다는 것이 지난 시간 여성의 글쓰기라는 것을 통한 메시지다.

▲ 근대 자본주의

영화는 인간의 기술문명에서 태어났으므로 근대 기술문명을 초래했던 자본주의, 산업주의와 맥을 같이 하게 된다. 영화산업에는 근대 자본주의가 암묵적으로 깔려있는 것이다. 근대 자본주의는 현대로 넘어오며 심화되어 모든 것을 상품화시키려고 한다. 인간도 상품화하고 이미지도 상품화한다. 상품화는 수치화, 계량화시킬 때 가능하다. 이 작업에는 평준화의 의도가 들어 있다. 평준화한다는 것은 그 안에 이데올로기가 잠재해 있다는 얘기로, 그 이데올로기가 무엇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사회의 성격은 달라진다. 현대의 특징은 모든 것을 상품화한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려면 돈을 내고 입장해야 되고, 전망이 좋은 집에 프리미엄이 붙는 등

자연마저도 상품화되었다. 인간도 그렇다. 옛날에는 덕이 인간의 평가기준이었지만, 지금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으로 여겨지고 평가된다.

▲ 영화 속의 여성 - 여성의 상품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을 상품화하는 문제가 여성에게는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가.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것이 영화다. 여성이라는 성을 상품화하여 영화산업을 키워온 것이 영화의 역사다. 잘 팔리는 영화로 만들기 위해 영화의 주제와 개연성이 없어도 가미요소로 여성을 등장시키기도 한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 여주인공 영신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한 인물이었을까.

▲ 진정한 여성영화의 부재

여성문제를 주제로 한 영화가 우리에게 있는가. 최근 여성감독의 등장하면서 여성영화가 부활했지만 그 이전에는 여성을 주제로 한 영화는 고부간의 갈등이나 인내하는 전통적인 어머니상을 다루는 정도였다. 아니면 여성의 성을 다룬 에로영화가 고작이었다. 여성의 삶 그 자체를 다루거나 여성이 하나의 주제적 모습으로 등장한 영화는 없었다.

- <마요네즈>

영화 <마요네즈>에서는 전형적인 어머니상을 벗어난 자기감정에 충실한 어머니가 그려진다. 모녀의 감정적인 대립을 단층적으로 그려서 여성은 극단적이고 감정적으로 치달는 존재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역할도 했지만, 어머니라고 다 똑같이 인내하고 희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머니이기 이전에 여성이고 싶고 아름다워지고 싶은 어머니를, 처음으로 묘사한 공헌도 했다. 그러나 이런 어머니의 감정은 어머니의 입으로 말해지지 않는다. 딸의 시점에서 보기 때문에 여성이 자신의 입장에서 그려지지 않는 것이다. 여성이 등장하는 기존 우리 영화들은 한정적으로 여성을 그렸다는 아쉬움이 있다.

반면 프랑스의 영화 <피아니스트>(원작 『피아노 치는 여자』)에서는 딸과 어머니의 비틀린 관계를 3인칭 관점에서 묘사된다. 여성의 심리에 대한 객관적인 응시를 볼 수 있다.

▲ 포스트모더니즘 여성 영화

여성을 영화 속에서 제대로 그려내려는 포스트모더니즘 영화제작자들의 작업은 프랑스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들은 다각적인 시선으로 여성을 그리고자 했다. 또한 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 포스트모더니즘 입장에서 영화 속에 등장한 여성의 성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억압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터부시되었던 여성의 성이, 공개된 화면에 이미지를 통해 드러냄으로 해방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등장한다. 이슬람 여성이 영화를 찍었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이 있었다. 자유주의의 바람이 불며 일부 이슬람 여성들은 차도르를 벗어던지고, 영상매체를 통해 할리우드의 문화를 따라하게 된다. 주체적 인간으로서 자기 세력을 구현하기 위한 몸치장이 아니라 서구의 문명, 이미지화된 이데올로기를 비판 없이 답습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유인가 성의 상품화인가. 또 문제는 실재가 아닌 만들어진 이미지를 동경하는 것이다. 영화 속의 스타에게도 이중적 억압이 등장한다. 스타는 자신으로 살 수 없고, 대중도 스타를 따라하기 때문에 자기로서 살지 못한다. 스타는 대중을 위해 끊임없이 자기가 아닌, 제3의 이미지

화된 자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관리하고 치장해야 한다. 자신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미지를 남성이 여성에게 부과하고 감상하는 것이다.

◆ 영화와 이데올로기

※ 학습목표

영화산업의 부정적 영향과 예술작품과 이데올로기의 관계에 대해 알아본다.

▲ 여성 배우 - 이데올로기의 꼭두각시

남성이 만들어낸 이미지와 메커니즘에 복무하는 여성 배우와, 여성 대중들을 남성들은 뒷집지고 비판한다. 그러나 사회분위기와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 것은 남성들이다. 이것을 비판 없이 받아들인 여성들이, 그 틀 안에 들어가 자기도 모르는 쳇바퀴를 돌리는 것이다. 영화감독은 대중예술인 영화를 찍는다는 명목 하에 여배우를 내세운다. 그러면 여배우는 자신의 몸을 상품으로 내주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자신은 계속 상품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다.

▲ 영화 산업이 일으키는 국가 간의 문제

영화산업이 국가 간에 일으키는 문제 또한 심각하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차이의 인정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에서는 앞서나가는 국가를 다른 국가들이 쫓아가게 마련이다. 미국 할리우드 영화는 전 세계 영화산업의 선두에 서며 거기 등장한 여배우들은 후진국 여성들의 표본이 된다. 여기서 문제는 국적 인종을 불문하고, 흰 피부를 가진 늘씬한 여성을 모델로 삼기 때문에, 그들 같은 외모를 추구한다든지, 남성들은 백인여성과 맺어지는 것을 성공과 능력으로 여긴다든지 한다는 것이다. 같은 여성끼리도 스스로 차별화하고 상품화해서 등위를 매기는 문제점도 생긴다. 문화가 세계를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가 서로 교류해야 하는데, 하나의 국가가 만든 이미지가 전 세계의 문화를 잠식하는 것이다. 어느 나라를 가도 대도시에 가면 미국을 본뜬 비슷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영화산업은 사회문제,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되었다.

▲ 이데올로기 극복을 위하여

사회적 압력으로 형성된 남성중심 이데올로기의 가부장적 문화를, 여성은 어떻게 극복하여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회와 개인의 문제기 때문에 계란으로 바위치기같이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시작한 여성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듯이, 미미한 노력에서 시작되지만 끊임없이 모든 사람이 진행시켜나갈 때, 사회는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들도 바뀌어야 되고, 남성들의 도움도 절실하게 필요하다. 남성은 여성을 하나의 타자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주체로서 바라봐서 주체의 만남을 강구할 때, 건강한 성의 문화, 대중문화, 예술,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다.

▲ 진보사관

과학은 인간을 편리하게 하지만 잘못 논리를 펴게 되면 진보사관을 갖게 된다. 보다 나은 기술의 발전을 추구하는 과학의 목표를, 그대로 역사나 인문학에 적용시키게 되면 진보사관이

된다. 인간에게는 적용하지 말아야 할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해 진보사관을 가지게 되면, 남성을 여성에 앞선 존재로 보고, 여성을 보호하고 다스려야할 존재로 인식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진보사관을 뒤집어볼 필요가 있다.

▲ 예술, 이데올로기의 반영

미술 작품을 보면 여성들에 대한 초상화가 남성보다 많다. 남성들은 모델, 타자가 되어 그려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시간적 여유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림이 발달한 시기는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기와 일치하는데, 당시 남성들이 자본의 선취에 몰두했다면, 거기서 제외된 여성들은 집에서 예술을 즐겼다. 화가들이 여성을 그릴 때 단순히 사실적으로 그리지 않았다. 같은 여성을 그리더라도 시대에 따라 다르다.

고대중세르네상스근대현대사실적 묘사 기록함 생동감삶포스트모더니즘* 예술작품에 드러나는 시대의 이데올로기

* 예술작품에 드러나는 시대의 이데올로기

고대

중세

르네상스

근대

현대

사실적 묘사

기록함

생동감

삶

포스트모더니즘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는 그림에 나타난다. 성모 마리아를 그린 그림을 보면, 같은 인물을 그림에도 시대마다 묘사가 다르다. 여성을 그리는 것도 본성을 그린다기보다는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여성은 어떤 모습일까. 일반적으로 남성은 역삼각형, 여자는 정삼각형 체형으로 보았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여성은 남성들이 여성성이라고 부여했던 것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면서, 신체구조 자체도 마치 남성화하는 것처럼 바뀌어나가고 있다.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인가. 한번 물어봐야 할 문제다. 남성과 여성이 차별적 존재가 아닌, 성별에 의한 차이를 가진 존재로 서로를 인정한다면, 서로 상호보완하고 공존할 수 있다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영화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영화는 대중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고 하나의 기록으로 역사에 남는다. 현재 우리 영화에서의 문제점은 여성만 노력한다고 고쳐질 문제가 아니다. 남성과 사회와 더불어 새로운 길, 새로운 영화를 모색해야 한다.

포스트모더니즘 여성영화

◆ 왜곡된 여성

※ 학습목표

영화 속에서 왜곡된 여성의 모습을 살펴본다.

▲ 新내조

경제부흥을 도모하던 시절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 행복한 여성의 삶이란, 좋은 남자를 만나서 손에 물 안 묻히고 부를 누리며 사는 것이었다. 사회논리와 여성상은 맞아떨어져가는 것이다. 그러다 경제가 어느 정도 도달했을 때, 남성은 가정과 일을 분리해 일에 파묻히고, 여성은 희생과 봉사해야 했다. IMF 위기가 되자 묻지 않았던 질문들이 등장한다. 남성 스스로도 자기의 삶에 대해 회의를 가지는 것이다. 어쨌든 늘 여성들은 남성과의 결합을 통해야 행복을 찾는 것으로 그려졌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상적으로 그려지는 것은, 여성이 재벌이나 부유한 전문직 남성과 결합해 살림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남편을 ‘내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진정한 ‘내조’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야 한다. 남성이 사회에서만, 여성이 가정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양성 모두 전체를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내조라고 하겠다.

▲ $\frac{1}{2} + \frac{1}{2} \neq 1$: 레비나스의 사랑공식

레비나스에 따르면 사랑은 불완전한 반쪽끼리 결합해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반쪽과 반쪽이 만나면 여전히 부족함이 남고, 온전한 남녀가 만났을 때 온전함이 나온다는 것이다. 자신의 모자란 부분을 채우려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해도 여전히 부족하다. 스스로 노력해서 전체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온전한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온전한 관계가 성립하고, 이 결합은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그러나 영상매체에서 등장하는 사랑은, 자신이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를 탐낸다. 그럴 때는 건강한 사랑이 나올 수 없다. 만약 여성이 주체성을 잃고 드라마처럼 부유한 남성을 찾는다면, 남성도 여성을 돈만 갖다 주면 되는 물적 대상, 성적 대상으로 대할 것이다. 그러나 깨어있는 여성이라면 그런 것을 피하고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온전한 모습을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파리의 연인>같은 드라마에서는 하루아침에 부유한 남성을 만나서 신데렐라가 되는 여성이 나온다. 이것을 보고 현혹된 여성들은 성형을 하고 왕자님을 기다린다. 나의 실체를 가면으로 가리고 서로 이미지만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다.

▲ 영화 속에서의 여성 - 팜므 파탈

영화 <한반도>에 등장하는 여성은 성적 매력을 이용해 남성을 유혹한다. 영화 속의 정치나 경제, 사회문제에 여성은 발 디딜 틈이 없다.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여자들은, 남성을 유혹하고 황폐하게 하는 모습으로 자주 등장한다. 남성의 시각에서 편견을 가지고 보기 때문이다. 역사 속의 여성들인 장희빈이나 황진이도, 인간적 면모와 그 시대 여성으로서의 삶이 이해되기보다는, 남성들의 시선에 의해 악녀나 유혹자로만 그려진다.

<한반도>

▲ 영화 <세 가지 색 : 블루>

키에슬로프스키 감독의 영화 <세 가지 색>은 블루, 화이트, 레드라는 세 가지 색을 통해 이상과 순결, 정열을 각각 그린다.

- 줄거리

정적만이 가득한 시골길, 행복한 한 가족이 피크닉을 나서지만, 예기치 않은 교통 충돌이 발생한다. 음악가인 남편 패트리스와 다섯 살 된 딸 안나를 잃은 줄리는, 그때부터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의식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고통에 방황한다. 남편에 대한 모든 기억을 잊으려 하면서 냉소적으로 변해가는 줄리는 그러던 어느날, 남편에게 정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순간부터 고통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리게 되는 줄리, 그러면서 자유를 얻게 된다.

◆ 포스트모더니즘 여성영화

※ 학습목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영화를 키에슬로프스키 감독의 <세 가지 색>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세 가지 색 : 화이트>

- 줄거리

폴란드 남자미용사인 카론은 아내 도미니크한테 이혼을 당한다. 이혼 사유는 성적 욕구 불만. 모든 것을 잃게 된 카론은 조국 폴란드로 돌아간다.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자본주의화 되어가던 그곳에서, 카론은 도미니크와의 재결합을 위해 돈벌이에 혈안이 된다. 웬만큼 돈벌이에 성공한 카론은 모든 것을 도미니크에게 양도한다는 유언장과 함께 거짓으로 죽는다. 연민과 속죄의 눈물을 감추며 장례식에 참석한 도미니크. 지친 몸으로 호텔에 돌아온 그는 침실에서 기다리던 카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다. 카롤이 뜻한 바가 무엇이었던가를 깨달은 도미니크는, 예전에 체험해보지 못했던 뜨거운 사랑을 나눈다. 이혼하기 전의 카론은 유럽통합 이전의 후진국이었던 폴란드를 상징한다. 반면에 도미니크는 상대국을 나타낸다. 또한 그들이 헤어지도록 만든 불완전한 성은 국가 간의 힘을 가리킨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나 이룬 완전한 성은 이 영화의 주제인 평등을 뜻한다.

- 소유인가 관계인가

대다수의 남성들은 여성에게 육체적 순결을 원한다. 내 여자만큼은 남자들과 손 한번 안 잡아봤기를 바라는 것이다. 또 사랑의 이름으로 여성을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다. 여성을 물적 차원으로 보는 것이다. 여성은 가져지는 존재가 아니다. 서로 관계하는 존재인 것이다.

▲ <세 가지 색 : 레드>

- 줄거리

발렌틴은 스위스의 제네바 대학 학생이며 패션모델로 활동한다. 그녀의 이웃에는 오귀스트라

는 법대생이 살고 있는데, 두 사람은 빈번하게 지나치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 어느 날 패션쇼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렌틴은 개를 치는 교통사고를 내게 된다. 개의 목에 달린 인식표의 주소지로 찾아가지만 개 주인인 노인은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 개를 치료하여 다시 찾아갔을 때, 발렌틴은 노인이 남의 집 전화를 도청하는 기벽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혐오감을 느낀다. 게다가 노인은 법적 도덕성에 대해 심한 회의를 느껴, 1년 전에 조기 은퇴한 법관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더욱 놀라게 된다. 그러면서 점점 노 판사를 이해하게 된다. 노 판사는 점차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회복하게 되고 발렌틴의 따뜻한 손길을 보듬는다. 그리고 우연한 만남들이 실은 얼마나 큰 의미의 필연적 만남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발렌틴에게 일깨워 준다. 영국에 있는 애인을 만나기 위해 떠나려는 발렌틴에게, 노 판사는 페리호를 타고 갈 것을 권한다. 그러나 예상 밖의 폭풍우로 페리호는 전복되고 1,000여명이 넘는 승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진다. 그중 일곱 명만이 극적으로 구조되는데, TV화면에 마지막으로 오귀스트의 보호를 받으며 구조되는 발렌틴의 모습이 보인다. 안도의 한숨과 기쁨의 표정이 가득 담긴 노 판사의 얼굴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된다.

- 조용한 정열

주인공은 상대를 사랑하지만 소유하지 않으며, 상대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여긴다. 불꽃 튀는 정열만이 사랑이 아니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상대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 영화와 사회

<세 가지 색>시리즈 같은 영화가 유럽에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영화감독 한 사람의 의식이 깨어있어서일까. 그렇지 않다. 그 시대의 사회의 가치관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유럽이라는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의식이, 사회의 일원인 감독에게 전달되고 감독이 영화를 찍으면, 다시 영화를 본 시민들이 사회에 영향을, 그 사회가 보다 더 나은 사회로 확대되어간다. 우리에게는 이런 영화가 없다. 역사와 전통의 깊이를 가지고 철학적으로 떠받쳐줄 수 있는 서사적 관점이 우리 영화에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역사와 전통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다. 이것을 영화에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를 다시 읽고 철학, 전통, 신화로 다시 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무런 준비가 없는 사회에서 자본주의 논리로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영화를 찍는 것은 오히려 사회를 오염시키는 유해한 것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여성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 영화 <피아노>

영화 <피아노>에서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온 주인공은, 소중한 피아노를 잃을 위기에 처한다.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 남편이 아닌 남자를 만난다. 남자가 주인공에게 처음 접근한 의도는 몸 때문이었지만, 주인공은 이해받았다고 느꼈을 때 자신을 열어준다. 그러나 남편은 자기를 단순히 소유하려고 할 뿐이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성은 남편에게는 마음은 열지 않는다. 남성들은 여성들이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것에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성과 남성의 관계성립이 잘못 되어있는 것이다.

▲ 신화의 변천

기독교에서는 창세기 이전의 역사는 마치 없는 것처럼 얘기한다. 여성은 남성의 갈비뼈에서

나온 존재이므로, 남성의 품 안에서만 정체성을 가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안으로 들어가 보자. 창세기 이전에는 신화가 없었는가. 많은 종류의 신화가 있었다. 여성이 죄를 가지고 오는 기독교의 창세기 신화와는 반대로, 수메르 신화는 남성이 누이를 꼬드긴다. 이 두 신화를 고고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의미와 해석 차원에서 봐야 한다. 모계사회의 신화에는 여신이 등장하지만, 가부장적 사회가 등장하면서 권력이 남성에게 넘어가, 여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여성을 죄로 묶어두는 신화가 탄생하는 것이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는 여신이 창조주이며 모든 것을 관장하는 우주 제일의 신이다. 하늘인 여신이 땅인 남성과 교합해서 자손들을 낳는다. 여신은 아들과 딸에게 자신의 능력을 분할하는데 이것이 토템이라는 상징성을 갖게 된다. 이때 아들의 토템을 갖고 있는 부족국가가 득세함으로써, 모계사회를 억압해가며 부족국가를 통합해간다. 그런데 출산은 여성의 고유능력으로 남성은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신화 초기에는 남성이 없이도 출산이 가능하다. 기독교의 동정녀 마리아도 이것의 흔적이다. 그런데 신화가 세분화되는 과정 속에서, 남자들은 여신의 출산과 양육의 과정도 가져야 한다. 그들은 여신을 죽이거나 억압시키는 방식으로 이것을 가진다. 여신을 죽이면서 여신의 신체는 세상에 뿌려져 대륙이 되고 바다가 된다. 자연이 되는 것이다. 이때의 자연은 죽은 자연이다. 그래서 자연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생명력을 갖지 못하고 물적 자원이 된다 한다. 그렇게 남성들은 여성을 물적 대상으로 격하시키고 자신들은 이성적인,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고 그 논리에 의해 철학이 이어진다.

▲ 살아있는 자연, 살아있는 여성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와 여성들은 남성들이 만든 이데올로기를 비판한다. 그리고 육체(자연)와 영혼은 분리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영혼과 육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가장 극대화되었던 시대는 근대다. 근대는 마치 자연을 인간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폄하시켜 마구 황폐화시켰다. 마찬가지로 그런 논리에 의하여 여성을 자연, 물적 존재로 해서 성적인 상품으로 다뤘다. 이에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자연은 살아있는 것이라는 목소리를 낸다. 자연은 기존의 가치관이 자신만의 언어를 가진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또한 인간이 함부로 자연을 다루면 자연의 역습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 따라서 더불어 사는 삶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여성과 남성도 서로를 살아있는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이다.

▲ 거울 앞에 서자

여성들은 감정적인 동물로 여겨진다. 본질적으로 여성이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현상적으로는 그렇다. 억압적인 사회 메커니즘 속에서 자라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런 여성상이 내재돼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정신분석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처럼 여성은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 거울 앞에 서 봐야 되는 것이다.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고 아플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냉정하게 스스로를 객관화하며 그릇된 가치관을 없애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